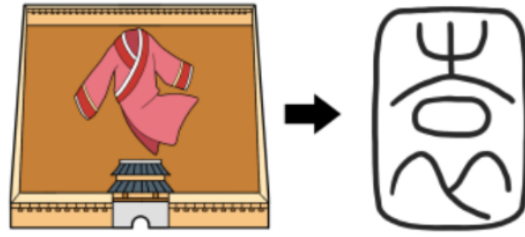


6  
-  
51

회의문자 ⓘ



園

동산 원

園자는 '동산'이나 '뜰'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園자는 囗(에운담 위)자와 袁(옷 길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袁자는 衣(옷 의)자의 옷깃 부분에 원을 그려 넣은 것으로 헐렁한 옷을 뜻한다. 옷깃이 헐렁해서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동산이나 뜰은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다. 그러니 園자는 여유를 뜻하는 袁자에 囗자를 결합해 '동산'이나 '뜰'을 뜻하게 된 글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멀다'라는 뜻을 가진 遠(멀 원)자도 마찬가지이다.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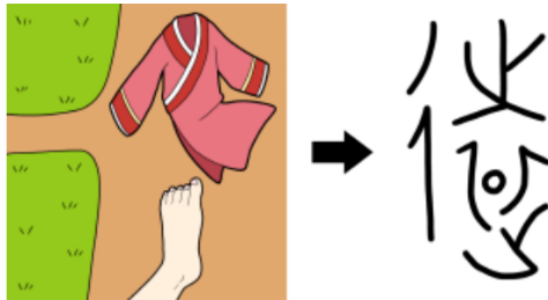
소전

해서

해서

6  
-  
52

회의문자 ⓘ



遠

멀 원

遠자는 '멀다'나 '심오하다', '오래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遠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袁(옷 길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袁자는 옷깃이 넉넉한 옷을 표현한 것으로 '옷이 크다'라는 뜻이 있다. 遠자는 이렇게 옷깃이 넓다는 뜻을 가진 袁자를 응용한 글자로 옷깃이 늘어져 있듯이 길이 매우 '멀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그래서 遠자는 '(길이)멀다'나 '멀어지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세월이)오래되다'나 '심오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금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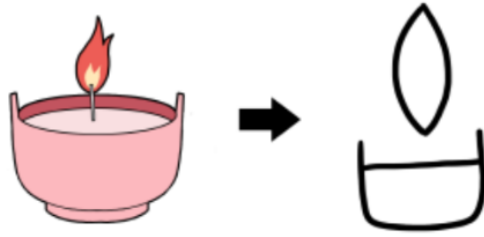
소전

소전

해서

해서

## 상형문자 ①



由

말미암을  
유

由자는 '말미암다'나 '쫓다', '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由자는 田(밭 전)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由자는 방안에 불을 밝히던 등잔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由자는 등잔과 심지를 함께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由자의 갑골문을 보면 등잔이 더욱 명확하게 𠩺 표현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由자는 '등잔'이 아닌 '말미암다'나 '쫓다', '행하다', '피하다'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여기에 水(물 수)자를 더하면 '기름'이라는 뜻의 油(기름 유)자가 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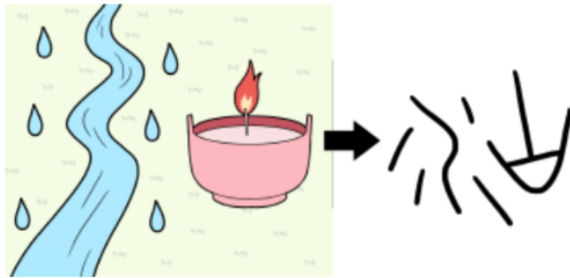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油

기름 유

油자는 '기름'이나 '유막', '광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油자는 水(물 수)자와 由(말미암을 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由자는 방을 밝히던 '등잔'을 그린 것이다. 등잔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니 油자에 쓰인 水자는 그러한 액체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油자는 단순히 '기름'이라는 뜻 외에도 '광택'이나 '유막'과 같이 기름의 특성과 관련된 뜻도 파생되어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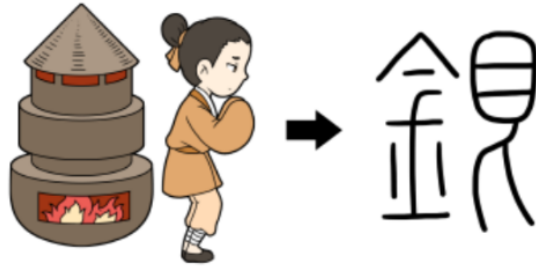
소전



해서

6  
-  
55

회의문자 ①



銀

은 은

銀자는 '은빛'이나 '은', '화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銀자는 金(쇠 금)자와 艮(그칠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銀자에 쓰인 艮자는 웅크린 채 시선을 내리고 있는 천민을 그린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은 고가이긴 하지만 금(金)보다는 저렴하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을 그린 艮자는 은이 금보다는 저렴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한때 銀을 화폐의 대체수단으로 사용했었다. 지금도 돈을 보관하고 빌려주는 곳을 은행(銀行)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

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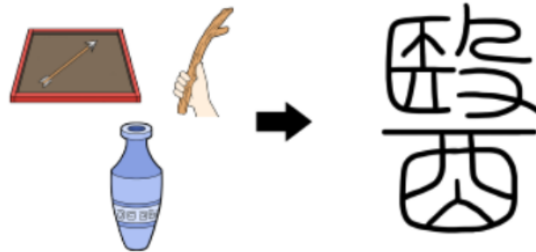
소전

銀

해서

6  
-  
56

회의문자 ①



醫

의원 의

醫자는 '의원'이나 '의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醫자는 毆(얹는 소리 예)자와 酉(닭 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毆자는 몽둥이와 화살을 함께 그린 것으로 '아파서 내는 얹는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 몽둥이나 화살에 맞아 다친 사람이 내는 얹는 소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얹는 소리를 뜻하는 毆자에 酉자가 더해진 醫자는 다친 상처를 치료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醫자는 몸에 꽂혀있던 화살을 빼내어 상자에 담아놓은(医) 모습과 다친 상처(爻)를 알코올(酉)로 소독한다는 의미를 담은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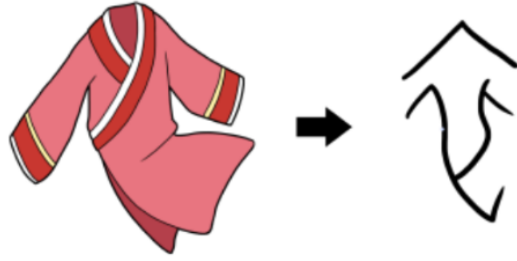
醫

소전

醫


해서

## 상형문자 ㉠



衣

옷 의

衣자는 '옷'이나 '입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衣자는 '윗옷'을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서는 옷깃과 양쪽 소매, 그리고 밑자락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衣자의 본래 의미 역시 '윗옷'이었다. 고대에는 상의는 衣로 하의는 裳(치마 상)으로 구분했다. 상의와 하의를 합친 '옷'을 의상(衣裳)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衣자는 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단순히 '옷'과 관련된 의미만을 전달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衣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衤자로 바뀌기 때문에 示=㉠ (보일 시)자의 부수자와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 ㉡



耆

사람(늙)  
자

耆자는 '늙'이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耆자는 耂(늙을 노)자와 白(흰 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耆자는 耂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노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耆자의 갑골문을 보면 이파리가 뺀 나무줄기 아래로 口(입 구)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탕수수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즙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사탕수수'를 뜻했었다. 후에 耆자는 '늙'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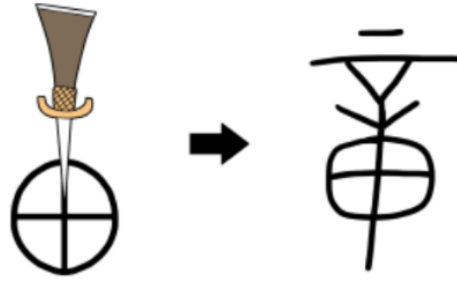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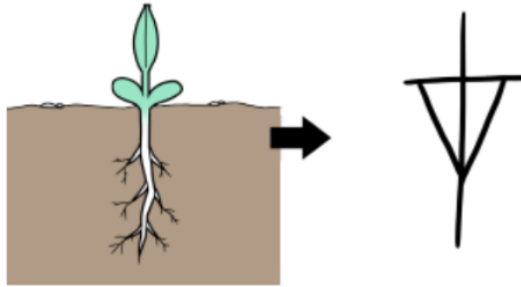
章

글 장

章자는 '글'이나 '문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章자는 立(설 립)자와 辛(아침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章자의 금문을 보면 辛(매울 신)자 아래로 둥그런 표식이 辛 그려져 있었다. 辛자가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도구를 그린 것이니 章자는 도구로 표식을 새겼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章자의 본래 의미는 '표시하다'나 '표식하다'였다. 하지만 지금은 '글'이나 '문장', '새기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在

있을 재

在자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在자는 土(흙 토)자와 才(재주 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才(재주 재)자는 새싹이 새로 돌아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才자가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후에 才자가 '재주'와 관련된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금문에서는 여기에 土자를 더한 '존재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